

이슬람 세계와 술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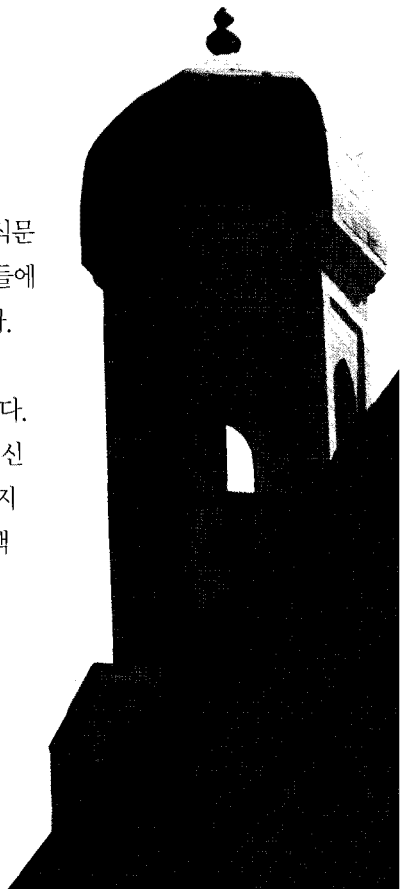


엄익란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슬람교는 7세기에 태동한 후 지금까지 전 세계 약 16억 무슬림의 음식문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무슬림들에게 식용이 허용된 '할랄' 음식과 금지된 '하람' 음식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식도락(食道樂)에 대한 이슬람교의 관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슬람교에서는 만물이 인간의 필요에 종속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인간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을 즐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함께 술은 이슬람 문화권의 대표적인 금기음식으로 분류된다. 관광객이 이슬람 지역으로 입국할 때도 술은 엄격한 검열 대상이다. 그렇다면 무슬림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술을 금기시켰을까? 정말로 무슬림은 술을 마시지 않을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술이 금지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쟁 전야에 술에 취해 곤드라진 채 발견된 병사가 몇몇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슬람교가 세를 급속히 확장하던 7세기, 즉 초기 이슬람 시대 무슬림은 성전(聖戰)을 내걸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사도 무함마드는 종교를 앞세운 전쟁에 마음을 경건히 하고 전의를 다져도 시원찮은 판에 술에 취한 병사를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이후 술 금지령을 내려 무슬림에게 술을 엄격히 금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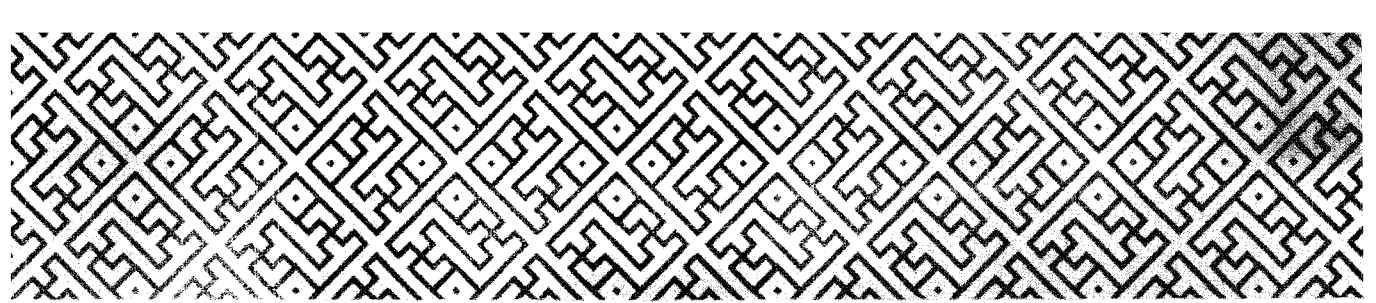
전쟁 기간 이외에 이슬람교에서 술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성과 절제심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면 종종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며 심지어 간통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통과 강간은 남녀 간에 분리가 엄격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꺼리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면 아랍 무슬림들은 절대적으로 술을 배척한 민족이 아니다. 오히려 술을 엄청나게 마셔댔다. 아랍 남성들은 자신의 호탕한 남성의 기질, 부와 도량,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술을 마셨다. 이슬람교가 태동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술 생산이 어려워 부근의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에서 술을 반입했으며, 수입품이었던 만큼 값이 매우 비쌌다. 그런데도 술 장사꾼이 깃발을 세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술을 사고 싶은 사람이 와서 깃발을 내리고 술을 샀다. 그리고 자신이 산 술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마셨다고 한다. 소위 술로 '한턱 쏘는 문화'가 아랍에서도 존재했던 것이다.

아랍인 사이에서는 술 마시는 데 재물을 탕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보다 오히려 진정한 남자임을 인정받는 명예로운 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술 앞에서 께 께해지면 웅졸한 사람이 되고, 술값 계산을 자처하며 호탕한 모습을 보이면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술 문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술을 금지한 이슬람교의 지도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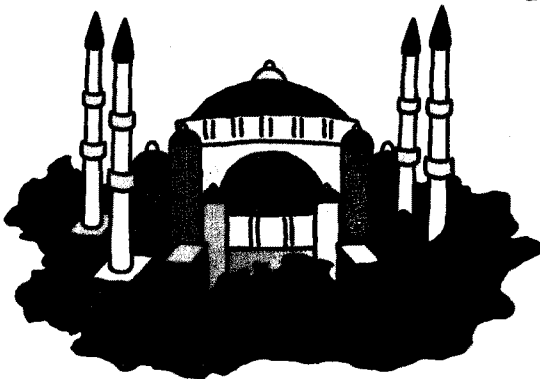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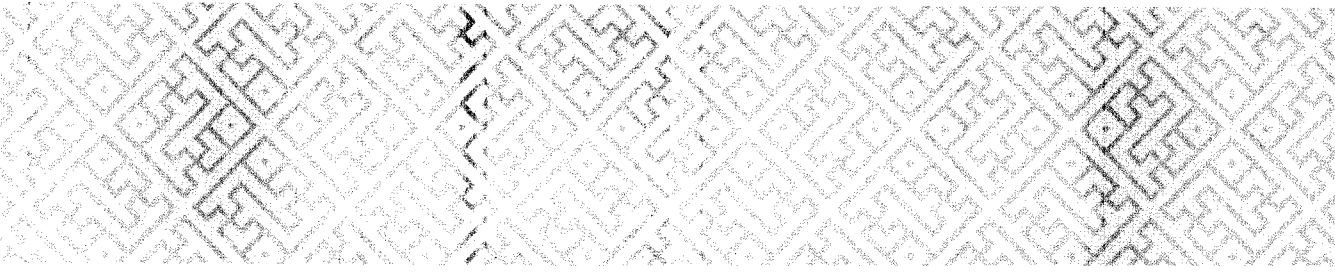
도 무함마드조차 술을 매우 사랑했다는 점이다. 그가 즐기던 술은 나비즈(nabiz)로, 대추야자 잘 익은 것과 설익은 것을 섞어 발효시킨 것이었다. 사도의 아내 아이샤는 “우리가 아침에 물 담은 가죽부대에 나비즈를 만들면 사도는 저녁에 마셨고 저녁에 만들면 아침에 마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무함마드의 사촌인 이븐 압바스는 “저녁 무렵 사도를 위해 나비즈를 만들면 다음날 아침과 저녁, 그다음 날도 계속 마셨다”고 전한다. 이를 두고 후세 무슬림 신자자들은 나비즈는 술이 되기 이전 상태일 뿐 술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금기가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술에 대한 금기조항을 초기 이슬람 사회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기도 한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아랍인이 술을 매우 사랑했던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반발을 고려해 술 금지 조치는 이슬람 도래 이후 아랍인들의 합의를 얻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교에서 술을 금한 중세에 술에 대해 노래한 주시(酒詩)는 더욱 발전해 아랍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세의 일부 시인들은 술을 소재로 삼아 노래를 불렀는데 술의 상태, 주연, 술자리에서의 노래와 대화, 술의 목은 정도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칼리프의 향연에서는 술이 빠질 수 없는 필수품목이 되었다. 술을 중심으로 칼리프의 연회는 귀족과 경쟁적으로 열렸을 정도란다. 이러한 중세 아랍인의 술 문화를 반영하듯 아랍어에는 ‘술친구’라는 뜻을 지닌 ‘나딤(nadiym)’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이슬람 세계에도 분명 술이 생산된다. 주로 소수 기독교인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데, 대표적인 술은 맥주와 아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등이 있다. 맥주의 기원은 고대로 올라간다. 고대 중동인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맥주를 마셨으며 이는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식품으로 간주되었다. 맥주를 여러 종류로 빚어 빨대 역할을 하는 관이나 짚으로 마시는 모습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 점토판과 이집트 벽화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맥주를 관을 이용해 마셨던 것은 음료수 위에 건더기가 떴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맥주에 대한 기록이 네 부분에 걸쳐 나타나 있다. “맥주 대금을 곡물로 받지 않고 은으로 받거나 곡물의 분





량에 비해 맥주의 분량을 줄인 경우는 맥주를 판 술집 여자를 물에 던진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맥주의 맛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달랐으며 양조업자들은 양념과 풍미를 달리한 맥주 빵을 만들어 팔았다. 노동자들은 맥주를 노동의 대가로 받기도 했다.

나일 강 주변 사람들은 비옥한 환경 덕에 맥주를 계속 마실 수 있었으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주민은 보리가 충분하지 않아 대신 대추야자로 술을 빚어 마셨다. 이 술이 아랍지역의 전통주 ‘아락(araq)’이다. 아락은 도수가 세기 때문에 주로 물이나 얼음으로 희석해서 먹는데, 물을 섞으면 투명하던 색깔이 흰색으로 바뀐다. 이 흰 빛깔 때문에 ‘사자의 우유’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락은 아랍어로 ‘증류’를 뜻하며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던 수메르인이 처음 만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증류주인 소주가 아락의 제조방법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몽골은 압바스 이슬람제국을 침략했을 당시 서아시아인에게서 양주법을 배웠으며,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했을 때 원정군의 본영이던 개성과 전진기지가 있던 안동,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를 빚어 소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아랍의 이슬람 국가, 특히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술을 구하기 까다롭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술을 접대하는 것이 상류층의 은밀한 특권이 된 경향도 없지 않다.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루머-그러나 그 소스는 다양하고 믿을 만한-에 의하면 부유한 아랍인 집의 지하 병커에 들어가면 술이 가득 찬 바(bar)가 있을 정도란다. 이는 곧 금기를 깰 수 있다는 것은 금기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상징한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술은 무슬림에게 선물을 할 때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품목이다. 또한 음식 조리과정과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알코올도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바닐라 추출물과 초콜릿, 화장품까지도 선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와 같이 무슬림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술 금기문화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